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16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도 로 과	담 당 자	• 도로운영팀장 • 담당자	김복수 ☎440-3781 박재형 ☎440-378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이름 없는 교차로에 이름 지어준다**

**- 4월 말까지 일제 조사 후, 도로 표지판 정비와 연계해 일제 정비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아직 이름이 없는 관내 교차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교차로의 명칭을 바꾸는 등 교차로명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차로명’은 특정 지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다. 시민과 차량 운전자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거리 등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도로 안내 표지판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신도시 등은 아직 교차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특정 지점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 긴급차량 도착이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원도심 내에서도 학교 이전 등의 이유로 기존의 교차로명이 주변 현황과 맞지 않거나, 부르는 명칭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기는 등 교

차로 지명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민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각 군·구에 4월 말까지 관할 구역 내 교차로를 전수 조사해 교차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교차로 명칭을 부여하는 등 일제 정비를 요청했다.

교차로명은 군·구 지명위원회, 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 지명위원회는 이를 최종 심의·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정해지게 된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이번 교차로명 일제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차량의 신속한 이동 등을 통해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사거리: 교차로 명칭 미지정>